

#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메뉴얼

류호현, 선민정, 이가현, 장정임\*

< 목 차 >

1. 들어가며: '트랜스'의 개념과 본 자료집 편찬의 취지
2. '트랜스'의 의미 및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 2.1 '트랜스'의 의미
  - 2.2 '트랜스'와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3. '트랜스+'의 예 및 연구 사례
  - 3.1 트랜스내셔널
    - 3.1.1 트랜스내셔널의 개요
    - 3.1.2 트랜스내셔널 연구 사례
  - 3.2 트랜스미디어 혹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 3.2.1 트랜스미디어의 개요
    - 3.2.2 트랜스미디어 연구 사례
  - 3.3. 트랜스휴머니즘
    - 3.3.1 트랜스휴머니즘 개요
    - 3.3.2 트랜스휴머니즘 연구 사례
4. 동아시아 어문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 4.1 동아시아 문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 4.2 동아시아 언어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 1. 들어가며: 본 자료집 편찬의 취지

본 자료집에서는 본 교육 연구단의 모토인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트랜스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신진연구원

2022.03.01.

적 연구 방법을 통한 중일 어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랜스(trans-)’는 현대 영어에서 접두어로 라틴어의 trans-에서 유래하였다. 그 의미는 (1) ‘across’, ‘beyond’, ‘through’(예: transcontinental ‘대륙 횡단의’), 혹은 (2) ‘change’, ‘transfer’ (예: transliterate ‘축자적으로 번역하다’) 등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랜스+@’ 등의 합성어가 계속 생겨나면서 ‘트랜스’의 의미는 단순히 접두어의 의미가 아니라, 관련 키워드인 ‘전파’, ‘수용’, ‘확장’, ‘전이’, ‘접촉’, ‘월경(越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이상의 무엇인가가 접촉하여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이 접촉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했던 경계가 해체되어 변화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는 것이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 대상인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또는 문화는 고정불변의 독립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즉, 주위의 언어·문화와 끊임없이 접촉이 일어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문화 간의 전파, 수용, 확장, 전이, 접촉, 층위 형성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트랜스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의 시야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의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여러 언어 혹은 문화를 비교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좀 더 근본적이며 참신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연구단이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통섭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영향, 상호작용, 비교, 확장, 통섭, 전파, 수용, 확장, 전이, 접촉, 월경(越境), 층위 형성,

## 2. ‘트랜스’의 의미 및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 2.1 ‘트랜스’의 의미

최근 인문학연구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등 ‘트랜스’를 접두어로 하는 용어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본 연구단의 목표에서도 볼 수 있는 ‘트랜스’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이기에 탈경계적 연구 방법이 가능해지는지, 먼저 ‘트랜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운경(2010)의 논문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sup>1)</sup>와 김연수(2010)의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연구에 관한 소고」<sup>2)</sup>에서 우리는 접두어 ‘트랜스’에 대한 의미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하에서 간략히 그 의미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trans-)란, 기존경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이 유입되는 문화 환경 속에서 거듭 새로이 만들어가면서도 기존의 정체성을 단순히 벗어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역으로 스스로 독자적이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체성을 찾는 끝없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계 짓고 구별해내는 데에 역점을 두지 않고 연계성을 갖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움직임, 과정성에 방점을 찍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랜스가 그 자체로는 “뚫고 건너가서(quer hindurch)”, “넘어가서(über hinaus)”, 혹은 “저 건너편으로(jenseits)”를 의미하지만, 문화화적인 인문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참작하면 ‘inter-’의 의미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사이(zwischen)”, “서로 마주하는(gegenseitig)”, “상호적인(reziprok)”의 의미

1) 조운경.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 탈경계 인문학 Trans-Humanities 연구를 위한 개념 고찰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3(3)(2010): 5-27.

2) 김연수.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에 관한 소고」 『탈경계인문학』 3(3)(2010): 29-61.

2022.03.01.

층위도 논의의 맥락에 따라서는 함축할 수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1) 경계를 넘어서고 혹은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 경계가 해체되거나 와해되면서 변용·혼종을 통해 새로운 것을 형성한다고 보는 의미 층위

2) 경계를 넘어서고 혹은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도 경계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거나 새로이 생겨나는 의미 층위

로 나타낼 수 있다. 영미권 어원사전(*The Barnhart Dictionary of etymology*)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 사전(*Le Robert*)을 참조해보면 ‘trans-’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이 크게 세 항목으로 정리된다.

① 가로질러, 너머, 통과하여 : ‘transcontinental’의 예처럼 이는 주로 공간, 지리학적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연결된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관통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② ~의 저쪽에, ~를 초월하여 : ‘transcend’의 예처럼 이 세계 너머 다른 편이 나, 저 너머의 다른 세계를 지칭한다.

③ 다른 조건 혹은 다른 사물이 되다 : ‘transform’의 예처럼 형태나 속성을 변화시킨다.

즉 요약하면 ①횡단, ②초월, ③변형을 의미하고 있다. 트랜스는 종단(縱斷)이 아닌 횡단(橫斷)을, 즉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이 아닌 수평적이며 네트워크적인 이동을 지향하며, 통시적이라기보다는 공시적이며 동시대적인 담론을 내포한다. 또한, 그것은 본래의 것, 원래의 것, 선행적인 것을 넘어서는 다른 지점을 추구한다. 시간상으로 말하면 미래의 계획을 품고 있는 현재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는 A를 B로 바꾸는 변형, 변질 등 변화의 의미를 드러낸다. 동사 ‘transfer’가 드러내듯 신체성, 물성 등의 ‘이전’을 의미하며, 이동성, 위치 이동, 정체성과 문화의 전이를 내포한다.

2022.03.01.

이처럼 ‘트랜스’라는 접두사는 문화적 차이들을 무화하거나 감소시키기를 의도하지 않으며, 각각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상실한 채 단일한 원리에 종속된 문화를 창출하지 않는다. ‘트랜스’라는 접두사는 문화의 표준화를 거부하며, 그와 반대로, 위계 없이 열려 있는 문화의 대화성을 지향하며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 2.2 ‘트랜스’와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상술한 ‘트랜스’의 풍부한 함의를 모두 포괄하는 한국어 번역은 찾기 어렵다. ‘통(通)’, ‘초(超)’, ‘횡단(橫斷)’, ‘탈(脫).....’ 등의 번역어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들은 트랜스의 전체적 의미의 일부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로스’나 ‘융복합’이라는 용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는 위의 몇 단어들과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트랜스’는 이러한 개념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현 문화 패러다임에서 종종 함께 비교되는 다른 접두사 ‘인터(inter-)’가 서로 대등한 두 주체의 상호 관계, 쌍방향성을 상징하고, ‘멀티(multi-)’가 다중심성, 열거, 공존, 상대주의(서로가 서로에게 연루되거나 관여하지 않음)를 지향한다면,<sup>3)</sup> 트랜스는 사이버 네트워크라든가 지구촌의 개념 같은 총체적, 메타적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 안의 요소들이 서로 깊이 간섭,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개별 요소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함께 일으킨다고 본다. 트랜스는 일종의 단일 혼합체(a single mix)를 상징하는 패러다임이어서, 이 관점에서 경계는 흐릿하고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이다. 트랜스의 패러다임에서 하나의 형태는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를 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때 변모하게 하는 힘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내부로 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트랜스’는 ‘비교’라는 개념과도 다르다. 비교는 두 개 이

3) 최용호. 「‘Trans-Semiosis’와 독서 행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2009): 83-106 참조.

2022.03.01.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뿐 기존의 자기 형상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합’과도 개념이 다르다. 단지 A라는 알갱이와 B라는 알갱이가 한데 섞여 있을 뿐 혼합도 기존의 자기 형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융복합’은 어떨까? ‘융복합’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트랜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필자는 ‘트랜스’가 ‘융복합’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융·복합’은  $1+2 \neq 3$ 과 같이 1과 2를 합쳤을 때 그 합이 단순히 1과 2를 하나로 합친 개념이 아니라 1이나 2의 형상이 남아 있지 않은 개념으로 본다. 하지만 ‘트랜스’는  $1+2 > 3$ 과 같이 1과 2를 합쳤을 때 그 합이 3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3보다 많은 새로운 결과(가령 5, 6...)를 가져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1과 2의 합은 1이나 2의 형상은 남아 있지 않은 새로운 결과이지만, 1과 2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트랜스’가 ‘융복합’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탈경계, 상호, 융복합, 횡단, 디아스포라, 혼종성, 유동적 정체성, 포스트휴먼 등의 키워드는 ‘경계’와 그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지점에 주목하는 키워드들이다. 또한, 그 ‘경계’가 반드시 선형적인 것은 아니며, 명확하지도 않다는 자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앞으로의 인문학연구를 전개할 때, ‘트랜스’ 개념은 다른 용어들의 의미를 포용할 뿐 아니라, 더욱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위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이상이 접촉하면서 단순히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하는 ‘트랜스’라는 개념이 결부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3. ‘트랜스+@’의 예 및 연구 사례

앞에서 살펴본바, 다양한 영역과 주체 사이의 경계, 그 경계의 초월, 혹은 경계의 무너짐에 주목하는 접두사 ‘트랜스’는 그 뒤에 다양한 개념들이 결합할 때 현 문화에 시사할 수 있는 인문학적 함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개념이다. ‘트랜스+@’의 인문학이 주목받고 시도되며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랜스+@’의 인문학은 트랜스문화(transculturality), 트랜스미디어(transmediality), 트랜스정체성(transidentity), 트랜스학제(trans discipline) 등, 지역, 매체, 젠더, 인간, 학문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최근 수년 간 가장 빈번하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트랜스 연구 중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미디어, 트랜스휴머니즘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트랜스+@’ 인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3.1 트랜스내셔널

##### 3.1.1 트랜스내셔널의 개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많은 학자가 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장소 그리고 제도 사이의 연계)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학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연결하는 활동, 실천, 패턴이 강화되는 현상을 국가 차원에서는 분석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분석적 도구나 관점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의 국제적인 이주가 과거와 비교하면 모국과 거주국 간의 쌍방향적 인구이동이며,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한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가적, 지역적 영토와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국

2022.03.01.

경 가로지르기의 사회적 현상에는 분명한 영토적 선호가 있고, 특정 목표나 초점이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지구적이거나 세계적 의식이 단선적 방법으로 진화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강화된 국경 가르기의 과정이 반드시 지구적 의식, 지구적 정의 등 증가하는 보편적 규범과의 주요성과 연관되진 않는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권리의 보편화라는 진보를 제안하지 않는다. 권리나 시민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구적으로 확산된 규범에 대한 전제가 없다. 국가적 영역 내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개념은 디아스포라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디아스포라는 주로 분산, 공동체, 집단 등을 일컫는다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1990년대 초반 이주연구 영역에서 응용되기 시작했으며, 과정을 강조한다. 디아스포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사이를 구분 짓는 것은 장소와 영토의 관계로 일컬어진다. 디아스포라는 모국에 매우 강하게 얽매어 있다. 모국을 잃거나 모국에 접근이 불가할 때 모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영토적 표시, 기억의 장소창출로서 보상되며 모국과의 연계를 고정해주는 말뚝에 묶여있어야 한다. 그러나 트랜스내셔널리즘에서는 이러한 단절은 일어나지 않으며, 모국이라는 곳에 얽매일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 사상의 프레임에서는 한 집단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행적 삶을 갖는다. 즉, 거주국도 지배적이고 모국도 지배적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 개념은 지구화 개념과 중첩도 가능하며 혼동되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구화의 영향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반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적 사회적, 지리적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 3.1.2 트랜스내셔널 (-지역, -문화) 연구 사례

① 차보은. (2021). 일본 초등학생들의 오키나와 학습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2022.03.01.

: 트랜스내셔널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연구, 28, 15-39.

\*본 논문은 동아시아를 트랜스내셔널하게 바라보고 평화와 연대를 구축하는 교육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한 초등학교의 오키나와 학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트랜스내셔널의 개념설명과 함께, 시민교육을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시도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특히 교육연구에 참고가 될 만하다.

〈본문 중 발췌〉

W 초등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담지 않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오키나와 지역민의 시각에서 오키나와와 일본의 사회구조 및 역사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경계이고 변경의 공간이다. 오키나와를 오키나와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앙 중심의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았던, 장소의 중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이다(차보은, 2020, 24). W 초등학교에서 오키나와 학습의 의미는 공공의 역사에는 배울 수 없거나, 보이지 않는 소외된 역사를 찾는 일이며, 그것이 현재의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즉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역사 담론을 넘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통해 학생의 개념 구조를 흔들고자 하는 시도 즉, ‘어려운 지식’을 통해 국민국가를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② 구재진. (2017). 민족-국가의 사이 혹은 너머에 대한 상상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트랜스내셔널 양상. 도시인문학연구, 9(2), 43-67.

\*본 논문은 문학사의 ‘이방인’으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내셔널한 특성을 밝히고 있다. 최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디아스포라문학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밝히

2022.03.01.

고, 정착한 지역/국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디아스포라문학의 트랜스내셔널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 〈본문 중 발췌〉

디아스포라 문학을 “국가 밖의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관점 역시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선주가 지적하듯이 그것이 “국가 안의 문학이라는 단일한 혹은 중심적인 실체를 일단 상정하고 그로부터” “소외된 존재를 국가 밖의 문학을 생산하는 주체로 봄으로써(박선주, 「트랜스내셔널문학」 178~9), 민족-국민문학의 패러다임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문학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지배 기표의 탈구축”을 통해서 “국가가 동형의 조직체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신형기 26)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논의는 ‘포스트내셔널’한 것이라기보다는 ‘트랜스내셔널’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포스트내셔널한 관점이 내셔널의 탈구축을 향한 것’이라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은 특정한 지역의 ‘범주화’를 넘어서는 지역의 ‘재개념화’를 향한 것”(박선주, 「트랜스내셔널문학」 186)이기 때문이다.

## 3.2 트랜스미디어 혹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 3.2.1 트랜스미디어의 개요

현대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어, 다매체를 사용하는 멀티플랫폼 스토리텔링(multi-platform storytelling)은 이미 중요한 생산원리일 뿐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그중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개념으로는, OSMU(one source muti use),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미디어 믹스(media mix) 등이 있으나, 최근 멀티플랫폼 스토리텔링은 원작의 스토리 세계와 다른 스토리 세계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크게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2022.03.01.

으로 구분되는 추세다.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원작 IP에 기반을 둔 각색(adaptation)과 다양한 방식의 재생산(remake, reboot)을 핵심으로 하는 방식이다. 반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원작과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된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트랜스미디어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콘텐츠 제작 형태이다. 이 개념을 정작시킨 헨리 젠킨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 1)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스토리가 공개되어야 할 것.
- 2) 다른 미디어로 유통된 콘텐츠의 소비 없이도, 개별적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는 그 자체로도 즐길 수 있는 완결된 스토리를 지녀야 할 것.
- 3) 새롭게 등장한 텍스트가 기존의 텍스트와 합쳐지며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이바지해야 할 것.

‘크로스’는 본질적으로 고정되고 완결된 문화원형(IP)을 반복적으로 생산, 소비하는 접근방식이다. 즉, 원천 서사의 동일한 스토리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재발화하는 것이다. 반면 ‘트랜스’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스토리월드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접근방식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구축하는 스토리월드 속에서, 각각의 미디어는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개방되어있으며, 독립적이지만 또한 연결되어있다. 각 구성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합되면서 또 다른 층위의 스토리월드를 구축할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완결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그 총체인 스토리월드에 변화와 확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스토리월드의 구축, 그리고 확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며 따라서 그 최종적 형태는 항상 가변적이다.

### 3.2.2 트랜스미디어 연구 사례

2022.03.01.

① 고운기. (2021). <원가(怨歌)>의 재구성 -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따른 문학적 해석 -. 한국시가연구, 53, 127-155.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전통문학(구전, 문헌 자료 등에 의해 정착된 구비 전승물)을 재해석하는데 적용한 연구 사례이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논지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문학 및 문화 전공자들이 고전·현대·당대 문학의 창작과 수용 혹은 미디어 변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본문 중 발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세계 안에 다수의 스토리(one world, many stories)’를 가지며, 다수로 증식하는 동안 이런 결과로서 전체 스토리는 ‘부분의 단순 합 그 이상’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독자 관객 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함께 쓰기’라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중략)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종의 구전 자료와 문헌으로 정착된 구비 전승물을 떠올리는데, 이들은 이미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스토리텔링의 여러 성격을 선형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참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은 구전으로 전달되는 민담이나 전래동화, 또는 구비 문학으로 정착된 고전소설 전수 과정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즐기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식과 닮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곧 전통적 이야기 구술 방식은 인쇄술의 발달로 잠시 잊혔다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다시 이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② 김경애. (2017). 트랜스미디어 현상과 문화적 변주 -소설 『화차』의 영화 <화차> 각색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9, 5-26.

2022.03.01.

\*본 논문의 경우 ‘트랜스미디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불안정하기는 하나, 한 문화권의 텍스트가 다른 문화권에서 트랜스미디어되어 수용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원형 텍스트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트랜스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이어온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비교적 풍부한 원형 텍스트가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원형의 (재)생산과 (재)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수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참고할만한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초록 중 발췌〉

이 글에서는 작품이 트랜스미디어 될 때 어떠한 부분이 유지되고 변환되는지와 이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떤 작품이 트랜스미디어 될 때, 원작을 환기하는 요소가 스토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원작과 영화화된 작품에서 일치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의 요소이다. 소설은 ‘훈마의 세키네 쇼코추적 과정’으로 영화는 ‘장문호의 차경선 이해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스토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영화는 매체의 성격에 맞추어 스토리 시간의 중심인물을 세키네 쇼코(차경선)로 변환했을 뿐 아니라, 인물 자체도 한국적 정서에 알맞은 가련한 여인으로 치환한다. 텍스트가 이처럼 변환된 데에는 ‘표현의 실질’ 곧 매체의 전이만이 아니라 ‘내용의 실질’ 곧 문화적 전이의 흔적이 엿보인다. 영화 <화차>의 변환은 영화 매체로의 변환인 동시에 한국적 텍스트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한국의 관객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한국적 리얼리티를 지닌 작품으로 변환시킨 결과물이다.

## 3.3 트랜스휴머니즘

### 3.3.1 트랜스휴머니즘의 개요4)

---

4)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참조

2022.03.01.

트랜스휴머니즘이란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나 특성을 개선할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는 건강수명이나 인지, 감정 등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 즉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의 변화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운동을 의미하는 용어다.

인류는 휴먼-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의 3단계 발전을 거치는데, 포스트휴먼의 전 단계인 ‘트랜스휴먼’이란 용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휴먼은 과도기의 인간(transitional human)을 나타내는 말로, 새로운 진화적 존재의 초기 형태다. 가령 성형수술, 보철, 원격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적인 삶의 형태, 세계시민주의적인 생각, 시험관 아기와 같은 재생산 방식의 변화, 종교적 믿음의 결여,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적 삶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더 오래 살고 인간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했던 인간의 고대로부터의 욕망과 과학이나 이성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계몽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기술애호가적이며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생명을 촉진하는 원리와 가치들의 인도를 받아서 과학과 기술의 수단을 이용해 현재의 인간 형태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적인 생명의 진화를 계속하고 가속화 하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철학들의 집합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성과 과학의 가속화 사이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학제적인 접근을 취한다. 주로 생명기술이나 정보기술과 같은 현재의 기술들, 그리고 분자 나노 기술이나 인공적인 일반지능과 같은 예상되는 미래의 기술들에 많은 초점과 관심이 주어진다.

둘째,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장려를 주장한다.

2022.03.01.

첫 번째 흐름과 다른 점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나 향상 기술을 이용한 사회복지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서로 엄격하게 배타적이지 않으며, 일부 인사들은 두 가지 흐름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

자연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생각은 첨단 생명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상과학 소설이나 문학작품 속의 포스트휴먼 분석, AI 기반 언어학습 도구 개발이나 번역서비스 구축, 언어교육 도구로서의 가상현실(VR) 연구 등 우리 연구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3.2 트랜스휴머니즘 연구 사례

① 김연순. (2013). 트랜스휴먼, 인간과 기계의 혼성적 실재에 대한 문화학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4(1), 41-56.

\*본 논문은 트랜스휴먼이 무엇이고,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면서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문화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3장에서는 로보캡, 아이 로봇, 아이언 맨 등 트랜스휴먼적 상상력을 언급하며 점차 트랜스휴먼이 정당화되고 있고, 인간과 기계의 합체가 현실화되는 사례를 들고 있다. 트랜스휴먼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 발췌〉

기계문명 시대에 신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첨단기술에 대한 매료는 트랜스휴먼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NBIC로 약속되는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과 같은 첨단기술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미 생명공학이 신 엔지니어링 기술로 발전하면서 실리콘, 철강, 마이크로 칩들이 자연스럽

2022.03.01.

계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이것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합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략) “인간 본성의 진화를 이해하려 할 때,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계 창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화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인간은 기계와 더불어 공존하고 공진화하게 된 것이다.

② 임현. (2015). 트랜스문화론의 변주(Ⅱ):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SF장르와 우주적 트랜스’,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 문교육, 49, 465-505.

\*본 논문은 트랜스문화론과 트랜스휴먼론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 트랜스휴먼론보다는 트랜스문화론이라는 문화학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휴먼의 사전적 의미와 트랜스휴먼의 향상과 변환, 트랜스휴먼의 3가지 유형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트랜스휴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2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도 연결된 내용이 많아 트랜스 연구에 대한 확산적 탐색도 가능하다.

#### 〈본문 중 발췌〉

이상 ‘트랜스휴먼’론의 4가지 패러다임들-‘사이보그, AI-EI,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에 관해서 일별해 보았다. 그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과의 트랜스적 연관성을 보이며, 그래서 흔히 SF장르에서 함께 등장하곤 한다. 그 속성상 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미래학적 비전을 지내는 그 인조인간들은, 여러 예시적인 작품들- 『루시』, 『제 5원소』, 『AI』, 『아이 로봇』, 『아바타』, 『매트릭스』, 『트랜스포머』, 『공각기동대』 등 -에서 상상적이며 공상적인 SF 장르의 중심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다.

## 4. 동아시아 어문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지금까지 접두어 ‘트랜스’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트랜스+@’ 인문학의 사례들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교육 연구단의 주 전공영역인 동아시아 어문학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랜스적 연구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본 교육 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 4.1 동아시아 문학·문화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① 홍설화. (2010). 기획특집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 김노의 작품에 재현된 재한 중국조선족 여성상. 비교한국학, 18(3), 63-83.

\*본 논문은 트랜스내셔널한 정체성을 지닌 중국 길림성 출신의 조선족 작가 김노의 문학텍스트를 페미니즘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 및 트랜스아이덴티티 현상의 한 면을 고찰하였다. 동아시아 특히 한-중 양국 사이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트랜스적 정체성을 지닌 작가의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학·문화 전공자는 ‘어느 국적 어느 민족 출신 작가의 어떤 언어로 창작된 텍스트를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도전적 의문을 제기해 볼 만 하다.

#### 〈초록 중 발췌〉

본 논문은 김노의 단편들에 재현된 조선족 여성 형상의 문제를 페미니즘과 사회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조선족 여성들이 미국땅에서 직면해 온 정체성과 주체, 소외의 문제들을 다룬다. 김노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2022.03.01.

로 1990년대 이후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 온 조선족 여성 가인데, 그의 많은 작품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진입해서 살게 된 조선족 여성들의 삶과 감정을 다루고 있다. 김노의 작품에 드러난 조선족 여성들의 문제를 살핌에 있어서 본 논문은 특히 주체성의 상실, 정성을 둘러싼 문제들,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목소리를 잃고 타자화되는 여성들의 이중 소외 경험을 다룬다. 나아가 이들 조선족 여성들이 자들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되찾고 목소리를 다시 얻기 위해 이 사회에 드리운 성적, 계급적 억압을 뚫고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그 과정에 주목한다.

② 문현선. (2017). 劉震雲 소설의 서사 변용 연구 -〈温故一九四二〉와 〈我不是潘金蓮〉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52, 167-188.

\*본 논문은 중국의 저명 작가 류진윈(劉震雲)의 소설이 영화로 변용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문학 원전이 새로운 매체 형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확장성을 획득하고 의미의 갱신을 이루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비록 이 과정이 현재 일반적으로 정립된 헨리 젠킨스적 의미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중국의 동시대 문학 텍스트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문화계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의 다양한 변용이 주요한 현상이자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재, 문학 연구의 범주가 인쇄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 IP의 전체 가치 사슬까지 포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초록 중 발췌〉

소설이라는 문자 텍스트가 영화라는 영상 텍스트로 ‘각색’되는 것은 가장 자주 발견되는 서사 변용이다. 본고는 동시대의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을 수 있는 劉震雲의 소설이 상업적인 극영화로 변용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분

2022.03.01.

석함으로써,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설과 서사라는 서로 다른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劉震雲의 <温故一九四二>는 보고문학 형식의 중편소설이며, <我不是潘金蓮>은 주요한 사건을 ‘서론’으로 취급하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본론’을 통해 중국 인민의 삶을 해석적으로 그려낸 장편 소설이다. 이 서로 다른 형식의 소설 서사는 서사 속 인물과 직접적인 혈연을 지닌 서술자, 서사 속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지 않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설적인 특성을 지우고, 영화 속의 ‘현실’을 이야기 속의 ‘사건’으로 치환하는 동시에, 재현 대상에 대한 ‘초점화’를 통해, 서술자와 사건 사이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블록버스터 영화의 서사를 창조해냈다. 이 변용의 과정에서, 劉震雲의 소설은 고유한 문학적 형식을 포기하고, 사건의 연쇄로서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구현하였다.

③ 김준연. (2021).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 중국문학, 106, 1-28.

\*본 연구는 중국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에 발맞춘 연구를 진행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비록 ‘4차 산업 혁명’의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학자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 ‘정보’를 가공하여 우리 연구에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중국 고전 연구자들 또한 AI 시대에 잘 적응하여 창의적인 방법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본문 중 발췌〉

본고는 (중략) ‘AI 시대’에 대응해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볼 다섯 가지 세부 분야를 검토했다. (첫째) 전산비평은 코퍼스 문체론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아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프랑코 모레티가 ‘멀리서 읽기’로 표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찰이나 어휘 수준의 탐색

2022.03.01.

에서 모두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둘째) 빅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하고자 할 때 유용해 보인다. 네트워크 분석과 연결 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은 ‘Word2Vec’과 같은 텍스트 처리 모델을 이용해 共起語 분석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문장 유사도 분석을 응용하면 異本 텍스트 간의 비교나 작가들의 계보 작성에 도움을 얻을 만하다. (넷째) 기계번역은 아직 원전 텍스트와 주석서의 안정적인 독해를 기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어로 된 2차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보시각화는 ‘GIS 기반 문화지도’와 ‘인포그래픽’ 분야 모두 아직 국내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고전문학 교육 분야와 연계해 더 활발한 탐색과 시도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④ 심수경. (2019). 문화콘텐츠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의 가능성 모색-트랜스미디어로서의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0, 405-424.

\*본 논문은 2005년 남북 합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트랜스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민족적 정체성에 주목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사례를 시야에 넣어 조명하며, 트랜스미디어, 미디어 믹스 등의 개념 정리도 함께 이루어져 문학·문화콘텐츠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하다.

#### 〈본문 중 발췌〉

문화콘텐츠산업이 부상하면서 OSMU(One Source Multi Use)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이것은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와 방식으로 개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혹

2022.03.01.

은 ‘미디어 믹스(media mix)’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트랜스미디어는 ‘트랜스(Trans)’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미디어 간의 경계선을 넘어 서로 결합·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디어 믹스는 본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해 둘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는“특정 오락상품이 일정한 시장을 확보했을 때 그 상품에서 파생한 상품을 몇 가지 오락 미디어를 통해 다수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니메이션은 OSMU의 한 전형으로, 『왕후 심청』 또한 OSMU 기반의 애니메이션이다.

⑤ 이채원. (2020).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59(1), 125-165.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욱 진전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여성들의 연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실, 주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여성의 역사 인식과 젠더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성폭력을 근원에서부터 투시하고자 한다.

#### 〈본문 중 발췌〉

일본 여성들도 함께 식민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당사자들이며 이때 한국여성과의 공통분모는 젠더 폭력에 대한 저항, 즉 페미니즘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페미니즘은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이어야 함께 식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중략) 무엇보다 점령지에서의 성폭력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젠더 폭력은 식민주의 폭력이라는 시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홀로코스트나 난징 대학살 등과 또 다른 시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위안부’는 식민주의 폭력과 젠더 폭력이 결합한 문제이며, (중략) 학제 간 정밀한 연결을 통해 남성

중심의 내셔널리즘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실천적 담론으로서 정교화된 페미니즘은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가져야 하고,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이 ‘남성의 얼굴’을 한 식민주의를 없앨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을 통해서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 4.2 동아시아 언어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그렇다면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에서 어떠한 트랜스 연구가 가능한가? 또한, 트랜스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새로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사실 현대의 언어 연구는 그 자체로 이미 트랜스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한 언어의 특정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해당 언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와의 비교 연구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sup>5)</sup> 친족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언어의 영향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sup>6)</sup> 그뿐만 아니라 인간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 및 유형에 대한 이해도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sup>7)</sup>

아래에서는 트랜스적 방법을 통한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의 네 가지 예를 제

---

5) 중국어는 계통적으로 한장 언어(漢藏語系, The Sino-Tibetan languages)에 속한다. 한장 언어란 중국, 티벳, 버마 등지에서 쓰이는 언어로, 이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상호 언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언어 자료가 희박하므로 상호 언어의 언어적 특성 및 음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친족 언어와의 비교·분석이 필수불가결하다. 한장 언어의 공통적 특성 및 계통 분류, 각 언어의 특성은 La Polla & Thurgood (2016)을 참조할 것. 한-장 언어의 비교를 통한 상호음 재구 및 어원 연구는 Schuessler(2008)를 참조.

6) 중국은 북쪽으로는 알타이어계, 서남쪽으로는 티베트어계, 동남쪽으로는 몽멘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및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맞닿아 있다. 중국어와 이들 언어는 장기간의 언어 접촉을 통하여 상호 영향을 끼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4.2.① 참조.

7) 인간의 언어를 친족 관계가 아닌 구조상의 공통점에 기초하여 분류,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언어 유형학이라고 한다. 일례로 세계 여러 언어는 그 어순에 따라 SOV(S: subject, O: object, V: verb), SVO, VOS로 나눌 수 있다(SOV와 SVO 언어의 비교에 관한 선구자적 연구는 Greenberg [1963]을 참조할 것). Haspelmath et al.(2005)에서는 세계 여러 언어를 총 99가지의 음운상, 형태상, 어휘상, 문법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https://wals.info/>를 참조할 것.

시하고자 한다.

① 중국어와 주변 언어와의 언어 접촉

중국어는 끊임없이 주변 언어와 접촉하였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현대 중국어 및 중국어 방언의 어휘 및 문법을 살펴보면 주변 언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다수 남아있다. 이처럼 언어는 원래의 고유한 특성 위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를 형성한다. 중국어의 형성 과정 및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 언어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8)</sup>

중국은 북쪽으로는 알타이어계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접경하고 있으며(투르크어, 몽고어, 만주-통구스어의 세 어군을 모두 포함), 서남쪽으로는 티베트어계 언어 사용 지역과, 남쪽으로는 몽몐어족(Hmong - Mien languages, 혹은 Miao-Yao languages라고도 일컬음),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및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맞닿아 있다. 이들 언어는 역사적으로 중국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알타이어계 언어를 사용하는 북방 이민족이 한족을 밀어내고 여러 차례 중원을 차지한 바 있으며,<sup>9)</sup> 그 시기에 알타이어계 언어가 중국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어는 원래 SVO(S: subject, V: verb, O: object) 어순이나, SOV 어순을 지닌 언어의 특성을 띠는 경우도 상당수 관찰된다.<sup>10)</sup> 이는 중국어가 SOV 어순을 지니는 알타이어

8) 197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어가 주변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며, 중국은 오직 주위의 언어와 문화에 영향력을 끼칠 뿐 주변의 언어와 문화는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언어와 문화는 영토 크기의 차이나 국력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상호 전파되고 수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화사상은 중국어의 발전 과정 및 층위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9) 기원후 4세기 이후부터 중국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으며, 이들이 한족을 몰아내고 왕조를 건립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대표적인 이민족 왕조인 북위, 요, 금, 원, 청나라 등은 모두 알타이어계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족이 건립하였다.

10) 현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VO 어순이나, SOV 언어와 유사한 측면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주장은 Li & Thompson(1974), Li(1975) 등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2022.03.01.

계 언어와 장기간 언어 접촉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중국어에 나타나는 SOV 언어의 특징으로는 (1) 전치사구(=개사구)가 동사 앞에 나타남(예: 我在圖書館學習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2) 방향사가 명사 뒤에 나타남(예: 桌子上 ‘책상 위’), (3)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어구가 명사 앞에 나타남(예: 我昨天買的書 ‘내가 어제 산 책’) 등이 있다.<sup>11)</sup>

이처럼 북방 중국어가 알타이계 언어의 영향을 받은 반면, 중국 남방 방언에는 몽멘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언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다수 관찰된다. 이들 언어는 [명사+형용사]의 어순을 띠는데, 중국 남방 방언에도 이러한 어순이 남아있다. 관화와 오방언을 제외한 한어 방언(상, 감, 객가, 월, 민방언)에서는 짐승의 성별을 나타내는 접사가 명사 뒤에 나타나 접미사의 형태로 쓰였다. 예를 들면 수탉을 雞公, 암탉을 雞母라고 하는데, 이는 관화 방언과 오방언에서 수탉과 암탉을 각각 公雞, 母雞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남방 방언의 이러한 어순은 [명사+형용사] 어순을 띠는 주변 언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즉, 公과 母는 명사 雞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이므로, 명사 뒤에 쓰였다.

상고 시기에는 중국 남방과 인접한 이들 언어가 현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일례로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의 사용 지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으나, 상고 시기에는 양쯔강 유역에까지 이르렀다고 추정된다.<sup>12)</sup> 따라서 이들 언어가 중국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어의 중요한 한 층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11) 이는 전형적인 SVO 언어에서 전치사구는 동사 뒤에, 방향사는 명사 앞에,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어구는 명사 뒤에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SVO 언어인 영어를 예로 들면 예(1)-(3)은 각각 I study in the library, on the table,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의 어순으로 표현된다.

12) 상고 시기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언어의 북방 한계선 및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언어로부터 기원한 중국어 어휘에 대한 설명은 Norman & Mei(1976) 참조. Norman & Mei는 중국어의 虎 ‘호랑이’, 江 ‘강’, 牙 ‘상아’ 등의 어휘가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로부터 차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방언 등 중국 남방 방언에는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로부터 차용된 언어가 더욱 빈번하게 관찰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한자의 전파와 수용 및 발전 과정

한자는 삼국시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 또한 언어·문화 간의 전파와 수용의 일례이다. 한국으로 전파된 한자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의 영향을 받아 한국한자음으로 발음되었다. 한편, 일본으로 전파된 한자는 전파된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층위를 형성하였는데, 오음(吳音)과 한음(漢音)으로 나뉜다. 한국한자음과 일본의 오음 및 한음은 중세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재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또 한차례 대규모의 한·중·일간 한자어의 전파와 수용이 일어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 근대 문물이 도입된 후 일본에서 생성된 여러 근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 ‘革命’, ‘文化’, ‘社会’, ‘科学’, ‘系統’ 등 - 은 중국으로 역수출되었다. 이는 한·중·일 삼국이 다수의 한자어 어휘를 공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어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특정 한자어 어휘가 각 언어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장(semantic field)이나 뉘앙스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한 어휘의 의미나 뉘앙스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언어 구성원의 사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sup>13)</sup> 일례로 ‘평가’(간체자로 评价, 일본 한자로 評価, 번체자로 評價로 표기됨)라는 어휘는 일본어에서는 ‘評価する’의 형태로 쓰여 ‘평가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높이 평가하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기도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이러한 뉘앙스가 없다.)

또 다른 예로 ‘불행’(한·중·일 모두 不幸으로 표기됨)은 한·중·일 언어에서 모두 명사, 동사(일본어에서는 不幸だ, 한국어에서는 ‘불행하다’의 형태로 쓰임), 부사(일본어에서는 ‘不幸に’, 한국어에서는 ‘불행하게’의 형태로 쓰임)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不幸은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는 ‘사망’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3) 일례로 중세 한국어에서 ‘어여쁘다’는 ‘가엷은’, ‘불쌍한’의 의미로 쓰였다. 중세 한국어의 ‘늬’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비하의 의미가 없다.

일본어에서 ‘不幸이 있었다’(不幸があった), 중국어에서 ‘不幸을 당했다’(遭不幸)는 ‘사망하였다’는 의미이나, 한국어의 不幸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한·중·일 언어에서 不幸의 용법 차이는 아래의 <표1>을 참고할 것)

### 不幸 / 不幸 / 不幸



K 不幸 [불행 bulhaeng]	J 不幸 [ふこう fukou]	C 不幸 [búxìng]
<b>1 名 形 副 행복하지 않음.</b> <span style="float: right;">K J C</span>		
① 불행하게 살다 ② 그의 말년은 불행했다. ③ 불행을 극복하다 ④ 불행한 일/불행이 일어나다/닥치다/잇따르다 ⑤ 불행히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① 不幸に生きる ② 彼の晩年は不幸だった。 ③ 不幸を克服する ④ 不幸なこと/不幸が起ころ/忍び寄る/相次ぐ ⑤ 不幸にも、彼は試験に落ちた。	① 活得很不幸。 ② 他的晩年很不幸。 ③ 克服不幸 ④ 不幸的事/发生不幸的事/遇到不幸的事/不幸的事接连二连三地发生。 ⑤ 很不幸，他落榜了。
<b>2 사망.</b> <span style="float: right;">X J C</span>		
①(그는 이미 죽어 있다.) ②(친척이 돌아가셨다.)	① 彼はすでに亡くなっている。 ② 親戚に不幸があった。	① 他已遭不幸。 ② 亲戚遭遇不幸。

<표1>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에 나타난 不幸의 용법  
(<https://tcvd-asia.com/ko/archives/4476>)<sup>14)</sup>

한·중·일 모국어 화자가 서로의 언어를 배울 때 이미 한자를 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각 언어에서 사용되는 공통 한자어의 의미상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중·일 공통 한자어의 이러한 뉘앙

14)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https://tcvd-asia.com>)에서 발췌.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658개의 공통 상용 단어, 문구에 대한 해설 및 예문을 수록하였다. 2018년 8월에는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rilateral Common Vocabulary Dictionary, TCVD)』을 출간하였다.

2022.03.01.

스 및 용법 차이는 본 연구단에서 추구하는 트랜스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언어학에서 두 개의 구체적인 트랜스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다.

③ 현영미 and 이경규. (2017).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펬의 일본어 수용에 관한 연구 -명치기 문헌에 나타난 첩어형태의 용례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69-84.

\*본 논문은 일본 메이지(明治)기 문학작품 속 첩어형태의 한어 오노마토펬 용례를 대상으로 오노마토펬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4장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펬의 전거(典拠) 유무와 어의(語義) 변화’는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활용하여 수용과정에서 의미 용법에 변화를 보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별 오노마토펬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연구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문 중 발췌〉

(중략) 한어 오노마토펬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국외 연구자 및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劉頴(2004)의 연구 이후로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어에 기인하고 있는 한어 오노마토펬가 일본어로 수용되어 정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추후 한어 오노마토펬의 한국어 수용양상과도 비교연구로 이어진다면, 개화기의 한국자료에 나타난 일본과의 오노마토펬 교류 및 대조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④ 윤상한 and 최연주. (2017). 대규모 횡단 코퍼스에서 보이는 일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관한 비교연구 -접속조사 「から」의 습득과정에 나타나

2022.03.01.

는 중간언어의 양상-. 일본학연구, 51, 307-332.

\*본 논문은 16개국의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대규모 코퍼스를 이용하여 접속조사 「から」와 「ので」의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중간언어’란 학습자가 특정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닮아 가는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진 언어로, 모국어와 특정 언어 사이의 단계에 있는 언어를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출처). 학습자에게 중간언어란 모국어와 (학습해야 할) 외국어 사이의 경계에서 반드시 거쳐 가는 단계인 만큼 모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문 중 발췌〉

(중략) 접속조사 「から·ので」의 습득은 학습자의 유니트 형성 전략 또는 오용 회피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어와 관계없이 보편적이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간언어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전략은 오용을 일으킬 만한 언어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비용(非用; non-uses)’이라는 소극적인 회피는 물론 유니트를 형성함으로 인해 유사한 두 가지 이상의 문법형식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본어 학습자의 모어의 형태학적 특성과 일본어 습득양상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에 대해 광범위한 발화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려 하였다. 단순히 몇 가지의 모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본어 습득의 양상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반연구로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다.

<참고 문헌>

- 강용수. (2021).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철학' -완전주의와 행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64, 255-285.
- 강희진. (2021). 재외 한인문학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 양상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과 재중조선인문학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37, 121-151.
- 강희진. (2021). 캐나다한인 시문학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 양상 - 문예잡지 『캐나다문학』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2(3), 633-657.
- 고현정. (2021). 트랜스리터러시 비대면 무용교육 사례를 통한 디지털 정체성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19-29.
- 권혁주. (2021).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의 웹툰창작 시스템 구축 - VR페인팅 기술을 이용한 웹툰의 가능성. 애니메이션연구, 17(1), 7-19.
- 김동미 and 정지수. (2021). 중재자로서의 번역가 역할에 대한 재고: 트랜스젠더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6), 93-108.
- 김동윤 and 배상준. (2019).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학제적 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24(3), 411-419.
- 김미경 and 임은혁. (2020). 구찌(Gucci)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4(6), 1087-1106.
- 김미경. (2020). 트랜스내셔널 광주: 재미한인사회의 5.18민주화운동. 21세기정치학회보, 30(4), 1-33.
- 김미선. (2017). 백석 시와 트랜스퍼스널. 한국시학연구, 49, 73-95.
- 김민경 and 김동혁. (2020). 트랜스미디어와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출판잡지연구, 28(1), 5-19.
- 김보명. (2020). '여성공간'과 페미니즘 -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71, 83-117.
- 김수연. (2021). '방탄소년단'과 아시아 남성성 -탈제국화와 트랜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82, 143-175.
- 김연수. (2010).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에 관한 소고. 탈경계인문학, 3(3), 29-61.
- 김연순. (2013). 트랜스휴먼, 인간과 기계의 혼성적 실체에 대한 문화학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4(1), 41-56.
- 김영철 and 전경란. (2021). <마이크로프린트: 스토리 모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

2022.03.01.

- 략.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1(2), 55-66.
- 김유곤. (2021). 트랜스퍼시픽 아방가르드 시문학과 존 케이지의 선불교 문화변용. 비평과 이론, 26(1), 33-62.
- 김윤지. (2020). 코로나 시대와 한국춤의 미래 :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5-34.
- 김종철 and 고영희.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차이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4(3), 105-124.
- 김현수. (2016). 장자의 '도통위일'에 근거한 트랜스퍼셔널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 - 홀리스틱 세계관에 기반한 ILP, MBS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55-74.
- 김현희. (2020). 재미한인여성의 트랜스보더 시민활동과 정체성의 정치: 세월호 광고 캠페인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2), 107-142.
- 김희. (2020). 장자 천망(天網)의 생성론을 통한 미디어 문화의 확장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大同哲学, 91, 127-150.
- 노명환. (2021). 디지털 아카이브와 큐레이션에 기초한 디지털 역사학, 공공역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역사문화연구, 79, 361-410.
- 박남용. (2021). 말레이시아 화인화문 시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과 문화적 정체성 연구. 중어중문학, 83, 69-108.
- 박성주. (2020).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접근권에 관한 윤리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9(6), 1-12.
- 박정례 and 이연준. (2021). Z세대를 위한 트랜스 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트랜스 브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9(3), 193-208.
- 배진숙 and 김재기. (2021). 쿠바한인 100년의 오디세이: 재미 쿠바한인의 연속적 트랜스내셔널 모빌리티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4(3), 145-189.
- 선영화. (2021). 학부 번역교육의 맥락에서 바라본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적 유용성 연구 - 광고번역 결과물의 텍스트 내적·외적 분석을 통한 실증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25(1), 73-118.
- 신상필. (2020). 고전적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신선·이인 서사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93, 35-58.
- 안민화. (2021). 박수남 감독 다큐멘터리 속 오키나와의 강제징용 군속과 위안부 재현 연구: 마이너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비커밍 아웃'으로서의 증언. 문학과 영상, 22(3), 739-778.

2022.03.01.

- 양리취엔. (2020). 트랜스미디어 환경의 새로운 영화 산업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 양리취엔. (2021). [특집 군사주의와 남성성] 에디 권히 군대 갔어 -트랜스젠더 여성 에디의 이야기. 문학동네, 109, 205-217.
- 우병훈. (2020).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도전받는 기독교 신학 :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166-217.
- 유연희. (2021). 메타비평, 해체, 트랜스텍스트성으로 읽는 노예법. 성경원문연구, 48, 26-49.
- 윤업지 and 이현중. (2021).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 바라본 <미스터트롯>의 참여문화 양상 연구. 반영과 재현, 2, 85-114.
- 윤인선. (2021). 여행 경험 서사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 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66, 61-84.
- 이상범. (2020).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철학적 인간학 -니체의 “인류애”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8, 357-390.
- 이영은. (2020). 트랜스젠더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 이춘입. (2021). 트랜스 히스토리(Trans History) -새로운 역사 분석 범주로서의 트랜스젠더-. 여성과 역사, 34, 257-297.
- 이태혁. (2021). 아마존의 역설, 자본주의 모순 그리고 기후변화: ‘트랜스-아마존’을 모색하며. 중남미연구, 40(4), 199-248.
- 임대근. (2020). 트랜스아이덴티티 인물형상의 표상들. 비교문학, 81:271-292.
- 임현. (2014). 트랜스문화론의 변주(I) : ‘트랜스-방법론, 트랜스텔링, 트랜스테마론’,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 47, 83-120.
- 임현. (2015). 트랜스문화론의 변주(II) :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SF장르와 우주적 트랜스’,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 49, 465-505.
- 임형택. (2021). 트랜스미디어적인 문학 공부와 교육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간 개발 방법론으로서-. 인문과학, 80, 227-256.
- 장문석. (2020). 트랜스내셔널 파시즘으로 가는 길목에서 -파시즘 비교 연구의 최근 동향-. 서양사론, 145, 249-287.
- 정다함. (2021). 해방 이후 고려 · 조선 시대사 연구에서의 관료제설, 막스 베버, 그리고 유교적 전통의 트랜스내셔널한 발명. 역사비평. 137, 6-45.
- 정제호. (2019). 희생제의 서사의 문화적 함의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양상. 구비문학연구, 54, 69-97.

2022.03.01.

- 조윤경. (2010).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탈경계 인문학 Trans-Humanities 연구를 위한 개념 고찰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3(3), 5-27.
- 주연경 and 조혜정. (2021). 방탄소년단 세계관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생성요건 연구. *인문사회*21, 12(4), 1161-1176.
- 차보은. (2021). 동아시아, 트랜스내셔널하게 보기 -오키나와 기억의 장소 학습 사례 연구 -. *한국사회교육과학회 학술대회지*, 165-181.
- 차보은. (2021). 일본 초등학생들의 오키나와 학습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트랜스내셔널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학교육연구*, 28(3), 15-39.
- 최수웅. (2021). 뉴노멀 시대의 스토리텔링 전개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43(3), 557-570.
- 최윤영 and 고정민. (2021).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723-733.
- 최은실 and 편정민. (2021). 브랜드 캐릭터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렉트로맨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64, 279-291.
- 최정화. (2021).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서사 표현 확장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논문.
- 최준식. (2017). 텔레비전 드라마의 논증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2(3), 177-198.
- 추진기. (2021). 브랜드 확장(Brand Extension)에 의한 트랜스 브랜딩(Trans Branding) 개발 수행사례 평가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66, 169-181.
- 한·중·일 공통 한자 어휘집 ([https:// tcvd-asia.com](https://tcvd-asia.com))
- 허은희. (2021). 포스트 다크멘터리의 ‘몰입’ 구조 연구 :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와 ‘트랜스미디어적 실천 양식’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18(1), 141-164.
- Greenberg, Josep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ing of meaningful elements.” In Josep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ndel, Zev. 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Brill.
- Haspelmath, Martin et al. 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als.info/>)
- La Polla, Randy J. & Graham Thurgood. 2016. *The Sino-Tibetan Languages*. 2<sup>nd</sup> edition. Routledge.
- Li, Charles N. and Thompson, Sandra A. 1974.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s of Language* 12, 201-214.

2022.03.01.

- Li, Charles N. 1975.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University of Texas Press.
- Norman, Jerry. 1988.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man, Jerry & Mei Tzu-Lin. 1976. "The Austroasiatics in ancient south China: some lexical evidence." *Monumenta Serica* 32: 274-301.
- Schuessler, Axel. 2008.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aylor, Insup & M. Martin Taylor. 2014. *Writing and Literacy i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Revised edi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